

(4)추자에서 생산한 백수오 생산자가 직접 품질 보증

제주천년약초

데스크승인 2015.11.05 김대영 기자 | kimdy@jejunews.com



제주천년약초 영농조합법인(대표 민 중)은 2014년 설립돼 제주 토종 백수오분말과 울금분말, 와송분말 등을 생산, 판매하고 있다. 특히 제주 토종 백수오분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추자면에서 재배된 4년산 백수오를 제주농업기술원 농산물원종장에서 세척한 후 제주테크노파크에서 열풍 건조한 후 분말화 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은 함량 100%의 백수오 분말이다. 와송분말 역시 추자면에서 재배된 와송을 분말화 해 제품화 한 것으로 이 제품 역시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 현재 제주시지역 농협 하나로마트와 중소기업청 특산물전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백수오분말과 울금분말, 와송분말은 조합원의 생산자 실명을 표기해 판매 중이다. 제주천년약초 영농조합법인은 43명의 조합원이 지역별로 각각 제주 토종 약초와 약용작물을 16만평 가량에서 재배하고 있다. 민중 대표는 “조합원들이 천궁과 백수오, 하수오, 우슬, 와송 등 30여 가지 제주본초 약초를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하고 있다”며 “생산자 실명제를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있다”고 말했다.

© 제주신보(<http://www.jeju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